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인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202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수 진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임인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수진

# 인 준 서

김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 배 수 영 (인)

심 사 위 원 임 인 경 (인)

심 사 위 원 김 은 주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학교급을 중학교로 한정하고, 2022년 교육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17년 문부과학성에서 고시한 「[음악편] 학습지도요령」을 비교·분석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양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전통음악 혹은 전통문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여 문서 체제 구조 및 내용의 흐름을 따라, 역량,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를 비교·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공통된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하는 방식과 전략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 음악교육의 전통문화 계승 전략을 재조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적 교육 방안 모색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교 현장에서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권고 사항이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 분석이나 교사 및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대상 .....	2
3. 연구 방법 .....	3
II. 이론적 배경 .....	4
1. 문화 속의 음악 .....	4
2.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전통음악 교육 .....	5
3.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과 전통음악 교육 .....	6
4.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 .....	7
III.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	9
1. 문서 체제 구조 및 내용 비교 .....	9
2. 역량 비교·분석 .....	11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	11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	13
다. 역량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	15
3. 성격 및 목표 비교·분석 .....	16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 .....	17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 .....	18

다. 성격 및 목표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	24
4.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비교·분석 .....	25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	26
1) 연주 영역 .....	27
2) 감상 영역 .....	28
3) 창작 영역 .....	31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	32
1) 표현 영역 .....	32
2) 감상 영역 .....	37
다.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	40
5. 교수·학습 및 평가 비교·분석 .....	41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	42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	43
다. 교수·학습 및 평가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	47
6. 기타 사항 .....	47
IV. 결론 .....	49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 1.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내재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국가가 음악교육을 통해 어떻게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음악교육의 방향성 및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 내 전통 음악 수용 방식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가 전통음악 교육을 통해 어떠한 교육적 가치와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세계화 시대 속에서 국가간 음악교육이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과 보편적 음악교육의 지향점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음악은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핵심적 예술 분야로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긴 역사를 바탕으로 고유의 음악적 전통을 형성해 왔으며, 학교 교육에서의 전통음악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국가별로 전통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적 접근방법,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교수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경험의 상이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의 전통 문화적 요소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국가적 맥락과 결합하여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과 일본 간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음악 교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심층적인 국가별 전통음악 교육 접근 방식과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각국의 문화적 가치와 이념,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태도와 정책 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전통음악의 교육과정 반영 양상을 토대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실천 전략에서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두 국가의 음악교육에서 나타나는 전통 문화적 요소의 특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음악교육을 통해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음악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목표와 내용, 교수 방법 및 평가 방식을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음악 교육과정에 내포된 전통 문화적 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전통문화 및 전통음악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 구성과 내용의 전개 양상을 비

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전통음악 교육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하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을, 일본은 헤이세이 29년(2017년) 문부과학성에서 고시한 「[음악편] 학습지도요령」(이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문서 간의 구조 및 내용의 유사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교급이 중학교였기 때문에 중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설정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전통음악 교육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학교급의 교육과정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둔다.

### 3. 연구 방법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두 문서의 흐름을 따라 문서의 목록 차례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을 한눈에 비교하고자 표를 활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전략을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서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화적 관점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여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상을 비롯한 시민상, 즉 인재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문화 속의 음악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E. B. Tylor, 1832-1917)는 문화를 학술적으로 정의하고자 시도한 첫 번째 학자이다. 타일러에 의하면, 문화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인 전체’이다(브리태니커, 2025).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ESL) 교수법의 권위자인 헨리 브라운(H. D. Brown, 1942~)은 저서 『언어 학습과 교수의 원리』에서 ‘문화는 삶의 한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맥락이며, 문화는 한 집단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라고 정의하였다(Brown, 2006). 또한, 문화에는 특정 기간,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특징짓는 아이디어, 관습, 기술, 예술, 도구로도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스더(2007)는 음악과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 영역에서의 문화적 역량에는 음악적 감수성, 창의성(창조성), 표현성, 모방성(재창조), 재현성, 상상력, 개방성, 미적 성찰 능력 등을 꼽으며, 이는 음악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역량임을 주장하였다. 예술의 한 분야인 음악은 문화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잇고, 그 시대와 공동체의 가치와 감성을 담아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악교육을 통해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는 것은 문화 전반과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음악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잇는 문화적 이해를 심화하고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는 통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음악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전승하는 실천의 장이자,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잇는 중요한 교육적 과정으로 기능한다.

## 2.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전통음악 교육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는 국악 관련 가창 제재곡은 없으나, 감상 제재곡으로 민요를 제시하였다.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노래’, ‘한국풍의 음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제1차 교육과정보다 국악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양종모, 2010).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에는 ‘국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제시되며, 민요, 농요 등의 장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981년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가창과 감상 제재에서 국악을 다루지 않고 있다. 1987년 제5차 교육과정에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는 가창 제재에서 민요, 전래동요를 제시하고 있으며, 감상 제재에서 민요, 전래동요, 농악, 사물놀이, 시조를 제시하고 있다.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감상 제재에 대취타, 취타, 판소리가 추가되었다. 2007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창 제재에서 시조의 초장 부르기가 추가되었고, 감상 제재에서 지역 전승 음악, 판소리, 줄풍류, 삼현육각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생활화 영역이 추가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국악의 비중이 증가하여 46.6%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현경실, 200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직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그리고 기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 생활화: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로 초·중등 학교급의 내용 체계가 동일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화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로 3-4학년은 ‘생활 속의 음악’, 5-6학년은 ‘국악과 문화유산’, 중학교 ‘세계 속의 국악’이 세분화되어 제시되었다(김민하, 2016).

국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포함한 전통문화가 어떤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곧 국가가 전통문화를 어떠한 교육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악은 그 명칭과 내용 구성 방식을 달리하며 점차 구체화되고 확대되어 왔다. 이는 전통음악이 단순한 유산이나 과거의 음악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학습자의 문화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적 가치 함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을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22a). 교양 있는 사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이 단순한 과거를 보존하고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에 대한 심미적 수용과 현대적 재창조를 강조하는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즉, 국악은 전통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과 비판적 성찰 능력을 길러,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교육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 3.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과 전통음악 교육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메이지 4년인 1871년에 교육 담당 부서인 문부성을 설치하고, 다음 해 새로운 학제를 발표하였다(임혜정, 2017). 새 학제에서는 소학교의 교과목으로 창가를 포함하고 있다.

문부성 음악취조부에 의하여 편찬된 「소학창가집」을 집필한 이사와 슈지는 「국가 교육사 설립 요지」에서 음악이 다른 과목에 비해 덕육과 수신에 도움을 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오쿠나가 야스토, 2013).

2006년,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1947년 개정 이래에 처음 개정되었다.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인간의 육성을 기대함과 동시에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길러낸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와 같이 ‘전통’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이지예, 2017, 재인용).

음악과에서도 전통을 중시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통음악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2008년 고시 「제8차 학습지도요령」,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2017년 고시 「[음악편] 학습지도요령」 에도 드러난다.

이처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제도화된 음악 교육의 전통을 바탕으로, ‘전통의 계승’과 ‘문화 창조’라는 교육적 기초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 특히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전통음악은 일본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체득하는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음악교육 전반에 걸쳐 전통과 현대, 자문화와 타문화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

선행 연구로는 학교급을 중학교로 설정한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학술 논문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신미(2004)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을 연구 대상의 범위로 삼고,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이는 양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학술적으로 비교한 첫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이경언(2011)은 한국·일본·중국·홍콩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일본은 2008년 음악편 학습지도요령을, 중국은 2001년 전일제 의무교육 음악과 교육과정 표준을, 홍콩은 2003년 예술교육 핵심 학습 영역: 음악 교육과정 안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석호징(2003), 권혜근(2009, 2010), 양종모(2017)는 초등학교(소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Ⅲ.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 1. 문서 체제 구조 및 내용 비교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네 영역으로 되어있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는 단일 영역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성격 및 목표의 하위 영역으로 각각 성격과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하위 영역은 각각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으로, 내용 체계에서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를 기술하고, 성취 기준에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성취 기준 해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교수·학습 및 평가의 하위 영역은 각각 교수·학습과 평가로, 교수·학습에서 교수·학습의 방향, 교수·학습 방법을 기술하고, 평가에서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반면,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설, 음악과의 목표 및 내용,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 지도 계획의 작성 및 내용, 그리고 부록의 다섯 영역으로 되어있다.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설에서 하위 영역으로 각각 개정 경위 및 기본 방침, 음악과 개정의 취지 및 요점을 기술하고 있다. 음악과의 목표 및 내용에서 하위 영역으로 음악과의 목표와 음악과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악과의 목표에서 교과 목표, 학년 목표를 제시하고, 음악과의 내용에서 내용 구성, 각 영역 및 [공통 사항]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은 제1학년의 목표 및 내용과 제2학년 및 제3학년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 하위 영역 모두 각각 목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지도 계획의 작성 및 지도 내용은 하위 영역으로 각각 지도 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 아홉 항목의 부록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첫 부분으로 배치되어 있고, 일본은 부록이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1〉 한국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구조 및 내용

한국	일본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1. 총설 개정 경위 및 기본 방침 음악과 개정의 취지 및 요점
1. 성격 및 목표 성격 목표	2. 음악과의 목표 및 내용 음악과의 목표 교과 목표 학년 목표 음악과의 내용 내용 구성 각 영역 및 [공통 사항]의 내용
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지식·이해 / 과정·기능 / 가치·태도) 성취 기준 성취 기준 해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3.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 제1학년의 목표와 내용 목표 내용 제2학년 및 제3학년의 목표와 내용 목표 내용
3.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 교수·학습의 방향 교수·학습 방법 평가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	4. 지도 계획의 작성 및 지도 내용 지도 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
	부록

## 2. 역량 비교·분석

###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모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와 총설을 맨 처음 제시하여, 역량을 문서의 처음부터 제시하고 있다.

〈표 2〉 한국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성격 및 목표와 일본의 총설 비교

한국	일본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1. 총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개정 경위 및 기본 방침
1. 성격 및 목표	음악과 개정의 취지 및 요점
성격	
목표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요’에서는 전체 교과를 아우르는 총론 역량과 교과 특성에 맞는 음악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 방향 등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요’는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시작하며, 이후 제시되는 음악 교과 역량인 감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 공동체, 소통의 다섯 가지 역량을 포함한다.

음악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감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여 음악 활동을 하며, 삶 속 공동체 내에서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교육부, 2022b, p. 3).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요’, 그리고 ‘성격 및 목표’에서 총론 역량과 음악 교과 역량을 제시한다. 여섯 가지의 총론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과 다섯 가지의 음악 교과 역량 - 감성 역량, 창의성 역량, 자기 주도성 역량,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 - 이 바로 그것이다(교육부, 2022b). 음악 교과 역량과 연계한 음악 교과의 영역 및 내용 체계를 구성하여 여섯 가지 총론의 핵심 역량 또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의 경우, 내용 전반에 걸쳐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다 항목에 관하여, 교양 있는 사람을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22a).

또한, 라 항목에 관하여, 더불어 사는 사람을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존중과 배려, 협력과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서술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이는 전통음악이 지역과 세대 간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 추구하는 인간상은 후술할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음악은 인간의 정서적·사회적 성장에 기여하는 공동체적 문화로서 기능하며, 문화의 계승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예술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교육부, 2022b)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에 의하면, 총론 해설에 나온 추구하는 인간상 네 가지 항목을 음악과 전반적 반영(안)과 연계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를 간추려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자기 주도적인 사람 - 자기 주도적 음악 학습,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생활 속 음악 활동, 음악 저작권 등 책임감 형성

· 창의적인 사람 - 새로운 음악 만들기 등 음악적 창의성 계발, 타 예술 및 교과 연계 음악 학습, 음악이 결부된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

· 교양 있는 사람 - 우리 음악을 통한 공동체 의식,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가치/공감, 음악 문화유산 향유/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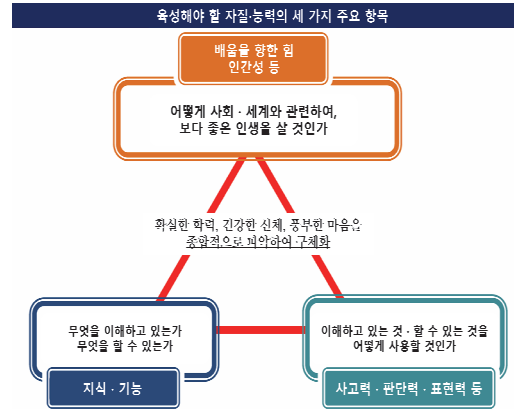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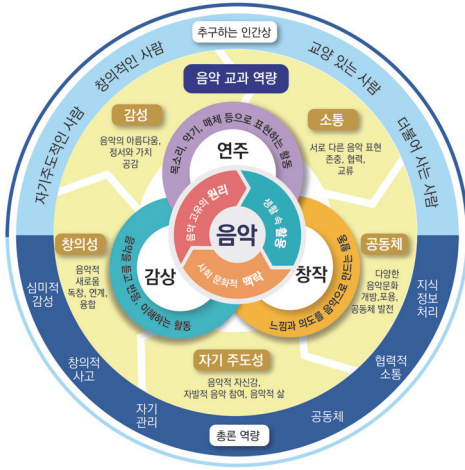
· 더불어 사는 사람 - 다양한 음악, 문화를 통한 소통,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배려/존중, 합창, 합주 등 함께 하는 음악을 통한 협력

(박지현 외, 2022, p. 96)

즉, 추구하는 인간상은 총론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핵심 역량으로 구체화되며, 이는 다시 음악 교과의 특성에 맞추어 감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 공동체, 소통의 다섯 가지 음악 교과 역량으로 재구조되어 반영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음악 교과는 교육과정 총론의 철학과 목표를 실제 음악 활동에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전통음악 교육 역시 이와 같은 역량 체계 속에서 인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교양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지향하는 인간상은 전통음악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데에 필요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적 방향성과도 맞물린다.

####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총설’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맞이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에, 중앙교육심의회로부터 자문을 구하게 된 개정 경위를 밝히고, 유치원 교육요령,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공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 경위와 기본 방침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과 개선 사항 등이 제시된 점이 특이하다.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각각 그림으로 제시된 역량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및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여러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이나 문화교육의 충실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과 개정의 취지 및 요점’에서는 지금까지 충실히 다져온 교육 목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할 목표를 밝히고 있다. 첫째, 교과 목표의 개선, 두 번째, 학년 목표의 개선이 그것이다. 그리고 개선할 내용으로 내용 구성의 개선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의 개선·충실로써 ‘①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지도 내용의 명확화, ② 감상 지도 내용의 충실화, ③ [공통 사항] 지도 내용 개선, ④ 언어 활동의 충실, ⑤ 가창 교재 및 기악 교재 선택 관점 개선, ⑥ 일본이나 향토의 전통음악에 관련된 지도의 충실화’의 여섯 가지를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부분은 ‘⑥ 일본이나 향토의 전통음악에 관련된 지도의 충실화’이다. 학습 내용의 개선·충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식 및 기능’은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역량 중 하나이다. 해당 문서의 앞부분에서는 총 세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그리고 ‘배움으로 향하는 힘·인간성 등’으로 구성된다.

세 역량 모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표현 및 감상의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견해·사고방식을 활성화하여, 생활이나 사회 속의 소리나 음악, 음악 문화와 깊이 있게 관계 맺는 자질·능력을 다음과 같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교과 목표 아래 상세히 기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 목표를 통해 세 가지 역량의 함양이 실현되며, 교과 목표 하 세부 목표인 ‘(1) 악상과 음악의 구조나 배경 등의 관계 및 음악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창의성을 살린 음악 표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2) 음악 표현에서 창의적 발상을 활용하고, 음악의 좋음이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3) 음악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음악에 친숙해지는 태도를 길러, 풍부한 정서를 기른다.’라는 항목은 각각 순서대로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그리고 ‘배움으로 향하는 힘·인간성 등’과 연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문부과학성, 2017).

#### 다. 역량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의 첫 부분에서 역량이 등장하였다. 한국은 다섯 가지의 음악 교과 역량 - 감성 역량, 창의성 역량, 자기 주도성 역량,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 - 과 여섯 가지의 총론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의 이중 트랙 역량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마치 총론 역량과 같이 모든 교과에 ‘지식·기능<sup>1)</sup>,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sup>2)</sup>, 배움으로 향하는 힘·인간성 등<sup>3)</sup>’의 세 가지 역량을 뿌리내

---

1)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살아 기능하는 지식·기능의 습득)  
 2) 이해하고 있는 것·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미지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  
 3) 어떻게 사회·세계와 관련하여, 보다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배움을 인생이나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배움을 향한 힘·인간성 등의 함양)

리도록 하는 단일 트랙 역량을 제시하였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음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역량은 음악 교과 역량과 총론 역량에서 모두 ‘공동체 역량’으로 나타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정의한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교육부, 2022a). 이러한 정의는 전통음악 교육을 통해 지역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역 및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및 ‘교양 있는 사람’의 지향점과도 일맥상통하며, 후술할 음악 교과의 성격에서 “공동체의 음악 문화는 인간, 문화, 사회를 통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며, 문화의 계승과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라는 서술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교육부, 2022b).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음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역량은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그리고 ‘배움으로 향하는 힘·인간성 등’의 세 항목 모두로 볼 수 있다. 교과 목표와 교과 목표의 하위 목표인 세 항목과 직접적으로 세 역량이 연계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달리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과 개선 사항 등이 개정 경위와 기본 방침에 수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항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 총론 및 총론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성격 및 목표 비교·분석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서는 역량에 따른 성격을 제시하고, 역량과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

정」은 음악과의 성격을 ‘1. 성격 및 목표’에서 기술하고 있다. 반면,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2. 음악과 목표 및 내용’에서는 종전 목표를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밝히고,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배움으로 향하는 힘 및 인간성 등에 따른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 그리고 음악과 내용에서 내용 구성과 각 영역 및 [공통 사항]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표 3〉 성격 및 목표와 음악과 목표 및 내용의 비교

한국		일본		
1. 성격 및 목표	성격	2. 음악과 목표 및 내용	음악과 목표	교과 목표
	목표		음악과 내용	학년 목표
				내용 구성
				각 영역 및 [공통 사항]의 내용

####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교과 역량과 총론 역량을 녹여낸 내용으로 음악과의 성격을 풀어내 표현하였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공동체의 음악 문화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 계승과 사회 발전의 토양이 된다는 음악과 성격 속 음악의 역할은, 단지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문화의 지속과 공동체 정체성 유지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과 교육과정 속에서 전통의 보존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계승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학습자 양성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음악을 통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미

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 함양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음악과의 성격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인간의 음악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의 음악 문화는 인간, 문화, 사회를 통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문화의 계승과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 (중략) 음악 교과는 이처럼 인간·문화·사회·산업·과학·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음악을 포괄적이며 효율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음악적 발달을 이끌어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이다(교육부, 2022b, p. 6).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과의 목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을 묶어 기술하고 있다.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포괄하는 음악 활동을 통하여 감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을 기르고, 일상 속 공동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악과의 목표인 ‘가.’부터 ‘마.’ 항목까지, 음악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삼아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인식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기른다.  
나. 음악의 의미를 탐색하고 새롭게 표현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른다.  
다. 생활 속 다양한 음악 경험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기른다.  
라. 협력적 음악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음악 표현을 존중하며 생활 속에서 소통한다.  
마. 다양한 음악 문화와 음악의 역할을 인식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다  
(교육부, 2022b, p. 7).

####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

본 논문에서 앞서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의 개선’에서 ‘⑥ 일본이나 향토의 전통음악에 관련된 지도의 충실화’에 주목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

승 및 발전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시된 ‘⑥ 일본이나 향토의 전통음악에 관련된 지도의 충실화’는 학생이 전통 음악을 감상하거나 습득 및 체득하는 차원을 넘어, 애착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 “우리나라 향토의 전통음악에 친숙하고, 좋은 점을 더욱 맛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에 한층 더 충실함이 요구된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가창이나 기악의 지도에 있어서, 전통적 가창이나 전통악기를 취급할 때의 배려 사항으로써 ‘학생이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좋은 점을 맛보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문부과학성, 2017, p. 8).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교과 목표를 ‘표현 및 감상의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견해·사고방식을 활성화하여, 생활이나 사회 속의 소리나 음악, 음악 문화와 깊이 있게 관계 맺는 자질·능력을 다음과 같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악상과 음악의 구조나 배경 등의 관계 및 음악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창의성을 살린 음악 표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2) 음악 표현에서 창의적 발상을 활용하고, 음악의 좋음이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3) 음악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음악에 친숙해지는 태도를 길러, 풍부한 정서를 기른다(문부과학성, 2017, p. 9).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교과 목표 아래에 제시하고 있다.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일일이 파악하여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풀이하는 방식의 서술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나라’, ‘향토’, ‘전통음악’, ‘전통’, ‘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점이다.

표현 및 감상의 폭넓은 활동이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향토의 전통음악을 포함한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을 교재로 취급하여, 음악의 소재가 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거나 음악의 다양성을 이해하거나 하면서, 학생 개인의 개성이나 흥미·관심을 살린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따라서, 소리나 음악, 이에 의하여 환기되는 자신이 떠올리는 이미지나 감정과의 관계, 소리나 음악, 그리고 생활이나 사회와의 관계, 또, 소리나 음악, 그리고 전통이나 문화 등의 음악의 배경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음악 표현에서 창의적 발상을 활용하거나 음악을 해석하여 평가하거나 하는 등의 학습은 한층 더 깊어져 간다(문부과학성, 2017, p.10-11).

일본의 음악과 교과 목표 진술은 단순히 표현 기술이나 감성 함양에 그치지 않고, 음악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한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향토’나 ‘전통’, ‘문화’라는 어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음악교육이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 형성 및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연결되는, 정서적이면서도 정체성 기반의 학습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종전의 목표에서 제시했던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음악 문화와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악과의 학습에서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깊이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음악을 인간의 삶과 함께 탄생하고, 발전하며, 계승되어 온 문화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음악에 애착을

가지거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 문화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과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지닌 음악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은 본래 음악과의 중요한 목표이며, 교과로서 음악을 학습하는 음악과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문부과학성, 2017, p. 12).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 음악에 애착을 가지거나’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음악을 통한 자아 정체성 확립과 일본인으로서의 문화적 주체성 형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이 전통음악을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현재와 미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재구성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악 문화를 생활이나 사회 속 소리와 음악이라는 실제적 맥락과 긴밀히 연결시켜, 전통음악을 살아 있는 문화로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자질·능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과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 시민성을 동시에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적 지향도 드러낸다. 특히 음악 문화와 깊이 있게 관계 맺는 자질·능력이라는 표현은, 전통문화의 단순한 보존이 아닌 정서적 몰입과 문화적 통합을 전제로 한 계승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이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감성적 접근(애착 형성), 실천적 접근(관계 맺기), 미래 지향적 접근(정체성 확립)이라는 여러 층위의 다면적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공동체적 연대와 문화적 소통 중심의 교육적 접근과 의도나 방향에서 유사하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정서 기반의 내면화’라는 일본 특유의 전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교과 목표와 함께 볼 대목은 음악과의 각 내용 및 [공통 사항]의 내용이다. 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현 영역에는 ‘① 음악의 소재로의 소리, ② 음악의 구조, ③ 음악에 의하여 환기되는 이미지나 감정, ④ 음악 표현에서의 기능, ⑤ 음악의 배경이 되는 문화나 역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표현의 다섯 번째 항목을 살펴보자.

상기 ①~④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풍토, 문화와 역사, 전통과 같은 환경이며, 음악 자체와 인간의 표현 행위 자체는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 생성되었다. (중략)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은, 각기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문화적 배경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리를 내는 방식조차도 그것을 길러 온 사람들의 감성이나 가치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이 어떠한 풍토나 문화와 역사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은, 곡에 대한 이해나 표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부과학성, 2017, p. 27).

[공통 사항]의 표현 ‘⑤ 음악의 배경이 되는 문화나 역사 등’은 음악이 단순한 학습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적 현상이자 유산임을 보여준다. 이는 음악이, 앞서 기술한 표현성, 구성력 등과 같은 예술적 특성을 갖는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감성적 동화를 전제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음악 표현은 단지 학습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존재 방식의 실천이자 표현이며,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를 가르친다기보다, 학생이 직접 체득하고 내면화하여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감상 영역에는 ‘① 음악의 소재로의 소리, ② 음악의 구조, ③ 음악에 의하여 환기되는 이미지나 감정, ④ 음악 감상에서의 비평, ⑤ 음악의 배경이

되는 문화나 역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 감상의 다섯 번째 항목을 살펴보자.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나 지역의 전통음악, 아시아 지역 여러 민족의 음악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에 접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과 음악 간의 관계에 관심을 키우고, 평생에 걸쳐 음악 문화를 친숙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음악 문화를 접하고, 그 다양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경험은 음악에 대한 가치관과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각각의 음악이 지닌 고유성과 여러 음악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음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문부과 학성, 2017, p. 30-31).

[공통 사항]의 감상 '㉟ 음악의 배경이 되는 문화나 역사 등'은 음악을 단순한 청취의 대상이 아닌, 인간 생활의 기반인 풍토, 문화와 역사, 전통 등과 같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더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감상해야 할 문화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음악 감상이 곧 인간, 사회, 문화 등을 연결 짓는 사유의 행위임을 전제한다.

특히 감상의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일본이나 지역의 전통음악, 아시아 여러 민족의 음악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으로 병렬적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음악 문화의 접촉이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자각의 기회로 작동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음악교육을 통해 단지 전통을 학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통을 스스로 가치 있는 음악으로 발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확장하고자 움직임에 담고 있다.

[공통 사항]의 표현과 감상의 다섯 번째 항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전통문화의 계승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감상자가 전통과 주체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되어야 하며,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음악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주체로서 학생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 다양성은 일본 전통과 병치되어 제시되며, 일본 음악 문화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병렬적으로 교육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이는 일본이 음악교육을 통해 전통에 대한 애착과 세계 각국의 음악에 대한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다. 성격 및 목표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양국의 교육과정 모두 전통음악을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닌,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공동체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매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전통음악을 공동체적 삶 속에서 소통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적 자산으로 바라보며, 공동체 역량과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강조한다. 이는 성격에서 제시한 ‘공동체의 음악 문화는 인간·문화·사회를 통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며, 문화의 계승과 사회 발전을 이끈다’라는 진술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과거의 유산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로 구성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전통음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정체성과 문화적 소통의 확대를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일본은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지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정서 중심의 문화 계승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과의 교과 목표는 전통문화 또는 전통음악과 관련된 용어들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며 교과 목표 아래 상세한 기술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공통 사항]의 표현과 감상의 각 ⑤ 음악의 배경이 되는 문화나 역사 등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애착 형성과 함께, 일본 음악의 고유성, 보편성, 그리고 세계음악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며, 음악 활동이 단절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 체험이 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은 전통음악의 교육적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그 접근 방식과 구현 전략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통음악이 각각의 교육과정에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장치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비교·분석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비교할 때,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3.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의 두 영역으로 나뉘며,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1학년 목표와 내용, 그리고 2학년 및 3학년 목표와 내용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표 4〉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2장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3장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3.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	
내용 체계	영역		1학년 목표와 내용	목표
	핵심 아이디어			내용
	내용 요소	지식 · 이해		-표현
		과정 · 기능		-감상
가치 · 태도		-[공통 사항]		
성취 기준	성취 기준	연주	2학년 및 3학년 목표와 내용	목표
		감상		내용
		창작		-표현
	성취 기준 해설	-감상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공통 사항]		
음악 요소				

##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한국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중학교 1-3학년을 통틀어 연주, 감상, 창작의 세 분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 기준은 성취 기준과 해설, 그리고 적용 시 고려 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음악 요소 표가 제시되어 있다.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는 핵심 아이디어 요소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원리·맥락·활용이라는 공통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요소들의 조합된 문장 형태로 기술된다(박지현 외, 2022).

내용 요소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 는 약 3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식·이해는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에 따라 음악의 범위, 음악 내적 지식, 학습 시 주요 관점으로 구조화되는데, 눈여겨 볼 항목은 음악의 범위이다. 음악의 범위는 감상, 창작, 연주 시 대상으로 할 음악으로, 예컨대 음악극 등의 장르가 아닌 생활, 시대, 문화, 연주 형태 등 포괄적 범위의 관점에서 구성한다(박지현 외, 2022). 이때 음악의 범위가 생활, 시대, 문화, 연주 형태 등 포괄적 관점에서 구성된다는 점은, 특정 음악 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 유형과 전통을 아우르는 방향성을 시사한다. 즉, 교육과정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국악과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음악’이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전통음악을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통문화 계승을 포괄하려는 총론 및 음악과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는 용어는 서양음악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국악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과정·기능은 각 영역의 지식·이해 학습을 어떠한 방법, 과정, 전략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실천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으로 구성된다(박지현 외, 2022).

가치·태도는 음악 학습과 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개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개인 차원의 가치·태도에서 사회적 차원의 가치·태도로 점차 확장되도록 하였다(박지현 외, 2022).

### 1) 연주 영역

[9음 01-01]의 성취 기준 해설에 따르면,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세계음악 등 음악 고유의 표현 기법을 익히고 향상시키는 연주 활동은, 음악교육이 연주를 통해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실천의 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9음 01-02]의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연주 활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평해 보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의 음악적 소통은 물론, 타인의 음악 표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문화적 태도 형성이 중시되며, 연주가 공동체적 상호작용 속에서 재해석되고 재전유되는 살아있는 문화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9음 01-04]의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주 문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연주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매개로 설정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연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체험하고,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며, 다양한 음악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연주 내용 체계 (교육부, 2022b)

연주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원리, 맥락,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인간의 느낌, 생각, 경험을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li> <li>· 개인적 혹은 협력적 음악 연주는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행위 과정으로 나타난다.</li> <li>·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매체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함께</li> </ul>

	경험하며 소통한다.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지식 · 이해	· 다양한 음악의 연주 형태 · 음악 요소, 음악적 특징 · 다양한 주법과 표현 기법 · 소리의 상호작용
과정 · 기능	· 노래와 악기 연주 향상하기 ·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 발표하고 평가하기
가치 · 태도	· 음악으로 협력하는 태도 · 연주 문화 인식과 참여

〈표 6〉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연주 성취 기준 (교육부, 2022b)

연주 성취 기준 중학교 1-3학년
[9음 01-01] 다양한 주법과 표현 기법을 향상시켜 노래나 악기로 개성 있게 연주한다.
[9음 01-02]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평가한다.
[9음 01-03] 소리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함께 표현한다.
[9음 01-04] 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연주에 참여하고 전통과 현대의 연주 문화 다양성을 인식한다.

## 2) 감상 영역

시대별·문화권별 음악의 특징과 전반적 구성을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문화 속에서 음악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역할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9음 02-02]와 [9음 02-03]의 성취 기준 해설에 의하면, 전통을 외부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며 정체성과 문화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설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 기준 해설은

음악교육을 통해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며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본 논문의 취지와도 맞물리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 속 다양한 감상 활동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고 이를 내면화·가치화 하는 자세를 길러, 나와 타인의 서로 다른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에 중점을 둔 [9음 02-04]의 성취 기준 해설에 의하면, 문화 감수성과 가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서술임을 보여준다.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이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한 측면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상호 이해와 감수성을 중심에 둔 감상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세계 속 국악의 가치와 위상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9음 02-05]의 성취 기준 해설에 의하면, 전통문화를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에서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적 유산으로 다시 위치시키자는 포부를 담은 교육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보존과 계승을 넘어, 문화적 브랜딩과 세계로의 확장까지 시사하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중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아리랑, 농악, 연등회, 탈춤과 같이 음악과 관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다시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감상하고 재발견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존 교육을 넘어, 국악과 관련된 유산을 세계 문화 속에서 위치시켜, 학생들에게 문화적 자부심과 세계 시민적 감수성을 동시에 길러주려는 한국의 전략적 지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악의 세계적인 가치와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보존을 넘어 '창조적 계승'과 '문화적 세계화'를 함께 모색하는 한국 음악교육의 지향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표 7〉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감상 내용 체계 (교육부, 2022b)

감상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원리, 맥락,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청각적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li> <li>· 음악적 수용과 반응은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li> <li>·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미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한다.</li> </ul>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지식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시대·사회·문화권의 음악</li> <li>·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음악문화유산</li> <li>· 음악 요소</li> <li>· 음악적 특징, 음악의 구성</li> <li>· 감정, 다양성, 배경, 역할</li> </ul>
과정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하여 듣기</li> <li>· 분석하고 파악하기</li> <li>· 비교하고 평가하기</li> </ul>
가치 ·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에 대한 존중</li> <li>· 음악의 다양한 가치 인식</li> </ul>

〈표 8〉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감상 성취 기준 (교육부, 2022b)

감상 성취 기준 중학교 1-3학년
[9음 02-01]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음악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9음 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악한다.
[9음 02-03] 다양한 시대·사회·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역할을 비교한다.
[9음 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감정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9음 02-05]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세계 속 국악의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다.

### 3) 창작 영역

오선보나 정간보 등 기존의 기보법과 애플리케이션, 사보 프로그램, DAW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음악 요소 등의 조건에 따라 악곡의 일부를 조건에 따라 변형하며 새롭게 만들어보는 데 중점을 둔 [9음 03-02]의 성취 기준 해설에 의하면,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양과 국악 기보법을 문화적 동등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학생은 기보를 단지 음표의 배열이 아닌, 문화적 표현 체계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표 9〉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창작 내용 체계 (교육부, 2022b)

창작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원리, 맥락,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상상과 가능성을 탐구하여 만들어낸 것이다.</li> <li>· 개인적 혹은 협력적 음악 창작은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과정과 결과물로 나타난다.</li> <li>·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며 기여한다.</li> </ul>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지식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형식의 음악</li> <li>· 음악 요소, 음악적 특징</li> <li>· 기보법(오선보, 정간보 등)</li> <li>· 음악 매체</li> <li>· 의도, 아이디어</li> </ul>
과정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하여 창작하기</li> <li>· 조건에 따라 바꾸기</li> <li>· 연계하여 만들고 활용하기</li> </ul>
가치 ·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주도적인 태도</li> <li>· 저작권, 책임감 인식</li> </ul>

〈표 10〉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창작 성취 기준 (교육부, 2022b)

창작 성취 기준
중학교 1-3학년
[9음 03-01] 음악적 의도나 아이디어를 여러 매체나 방법에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창작한다.
[9음 03-02] 오선보, 정간보 등의 기보법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악곡의 일부를 바꾼다.
[9음 03-03] 음악의 요소와 특징을 활용하여 간단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9음 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일본의 경우, 1학년 목표와 내용, 2학년 및 3학년 목표와 내용으로, 두 학년을 나누어 A: 표현, B: 감상, [공통 사항]의 세 분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성취 기준과 결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내용 부분으로, A: 표현에서 노래, 기악, 창작 활동을 지도할 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 사항을 다루고 있다. B: 감상에서는 감상 활동을 지도할 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 사항을 다루고 있다. [공통 사항]에서는 A: 표현과 B: 감상을 지도할 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 1) 표현 영역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2학년 및 3학년 내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현은 가창, 기악, 창작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은 중학교 1학년의 내용으로, 가창, 연주, 창작의 세 부분을 포함하는 A: 창작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내용, A: 표현 (문부과학성, 2017)

(1) A. 표현

(1) 가창 활동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가창 표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거나 활용하며, 창의적으로 노래 표현을 구성하는 것.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가) 곡의 분위기와 음악의 구조, 가사 내용 간의 관계

(나) 목소리의 음색과 울림, 언어적 특성, 곡의 종류에 맞는 발성 간의 관계

다. 다음 (가) 및 (나)의 기능을 익히는 것.

(가)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발성, 발음, 신체의 사용 등 필요한 기능

(나) 창의적인 표현을 살려 전체의 울림과 각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타인과 함께 노래하는 기능

(2) 기악 활동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기악 표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거나 활용하며, 창의적으로 기악 표현을 구성하는 것.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가) 곡의 분위기와 음악의 구조 간의 관계

(나) 악기의 음색과 울림, 연주법 간의 관계

다. 다음 (가) 및 (나)의 기능을 익히는 것.

(가)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연주법, 몸의 사용 등 필요한 기능

(나) 창의적인 표현을 살려 전체의 울림과 각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타인과 함께 연주하는 기능

(3) 창작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창작 표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창작 표현을 구성하는 것.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가) 음의 연결 방식의 특징

(나) 음 소재의 특성, 음의 겹침·반복·변화·대조 등의 구성적 특징

다. 창의성을 살려 표현하기 위해, 과제나 조건에 따른 음의 선택과 조합 등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1학년 가창의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 (나) 목소리의 음색과 울림, 언어적 특성, 곡의 종류에 맞는 발성 간의 관계’의 항목 해설은 다음과 같다.

민요, 나가우타 등 일본의 전통 가창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가창에는, 각 곡의 종류에 알맞은 발성 방식에 따라 형성된 고유의 음색과 울림이 존재한다. 언어의 특성에는, 억양, 악센트, 리듬, 자음과 모음의 사용 방식, 언어가 지닌 음질과 어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선율, 리듬, 곡의 구조 등과 깊이 연관되어 음악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곡종’이란 음악의 종류를 의미하며, ‘곡종’에 따른 발성이란 민요나 나가우타 등 일본 전통 가창을 포함한, 일본 및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발성을 의미한다(문부과학성, 2017, p. 40).

표현의 가창 활동 지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음악의 발성과 언어를 단순 지식이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하려는 실천적 접근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노래의 발성법은 그 문화의 언어와 정서적 표현을 반영한다’라는 사고방식에 근거하며, 음악과 언어, 문화가 상호 연계된 통합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창 활동은 노래 부르기를 넘어서, 목소리를 통한 문화 정체성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1학년 기악의 ‘다. 다음 (가) 및 (나)의 기능을 익히는 것 - (나) 창의적인 표현을 살려 전체의 울림과 각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타인과 함께 연주하는 기능’의 항목 해설은 다음과 같다.

‘각 성부의 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앙상블을 할 때의 각 성부뿐만 아니라, 반주나 일본 전통음악에서의 소리 등도 성부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략) 또한, 일본 전통음악 등에서는 노래와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는 (1) 가창의 다.- (나) 항목에 해당하는 타인과 호흡을 맞추어 노래하는 연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래, 소우, 샤미센, 하야시코 등을 각각의 성부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들으며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어 연주하는 기능을 익혀 나가는 것이다(문부과학성, 2017. p. 42).

표현의 기악 활동 지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을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통을 연주하며 살아 있는 감각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음악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연이 아닌 공명을 통해 전통을 보존 및 계승, 향유하고자 하는 일본 음악교육의 입장을 읽어낼 수 있다.

1학년 창작의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 (나) 음 소재의 특성, 음의 겹침·반복·변화·대조 등의 구성적 특징’의 항목 해설은 다음과 같다.

‘반복’, ‘변화’, ‘대조’ 등은, 소리를 음악으로 구성하기 위한 원리를 예시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반복’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동기, 선율, 리듬 패턴 등을 반복하거나, 곡 안의 특정 단락을 반복하는 형태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일본 전통음악에서 볼 수 있는 ‘테(て)’와 같은 선율형의 반복, 혹은 ‘A-B-A 구조’로 이루어진 3부 형식에서 A 부분의 반복 등, 반복은 매우 많은 음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문부과학성, 2017, p. 52).

표현의 창작 활동 지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의 음악 문법과 미학적 구조를 학생의 창작 활동 속으로 자연스럽게 흡수·재구성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을 창작의 자산으로 상정하여, 표현과 정체성의 수단이자 감각의 내면화 도구로 삼고자 하는 교육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는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내용으로, 가창, 연주, 창작의 세 부분을 포함하는 A: 창작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과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표 12〉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 내용, A: 표현 (문부과학성, 2017)

(1) A. 표현

(1) 가창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가창 표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거나 이를 활용하여, 곡의 특성에 어울리는 가창 표현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가) 곡의 분위기와 음악 구조, 가사 내용 및 곡의 배경 간의 관계

(나) 목소리의 음색과 울림, 언어의 특성과 곡의 종류에 맞는 발성 방식 간의 관계

다. 다음 (가) 및 (나)의 기능을 익히는 것.

(가)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 필요한 발성, 발음, 신체 활용 등의 기능

(나) 창의성을 살려 전체의 울림과 각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노래하는 기능

(2) 기악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기악 표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거나 이를 활용하여, 곡의 특성에 어울리는 기악 표현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가) 곡의 분위기와 음악 구조 간의 관계

(나) 악기의 음색과 울림, 연주법 간의 관계

다. 다음 (가) 및 (나)의 기능을 익히는 것.

(가)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 필요한 연주법, 신체 활용 등의 기능

(나) 창의성을 살려 전체의 울림과 각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타인과 함께 연주하는 기능

(3) 창작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창작 표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창작 표현을 구성하는 것.

나. 다음 (가) 및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가) 음계나 언어의 특성, 음의 연결 방식의 특징

(나) 음 소재의 특성, 음의 겹침·반복·변화·대조 등의 구성적 특징

다. 창의성을 살려 표현하기 위해, 과제나 조건에 따른 음의 선택과 조합 등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감상 영역

감상 영역은 표현 영역의 가창, 기악, 창작의 세 부분으로 나뉘지지 않고 단일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13〉은 중학교 1학년의 내용으로, B: 감상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13〉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내용, B: 감상 (문부과학성, 2017)

### (2) B. 감상

(1) 감상 활동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감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활용하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음악의 좋음(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끼며 감상하는 것.

(가) 곡과 연주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

(나) 생활과 사회 속에서의 음악의 의미와 역할

(다) 음악 표현의 공통성과 고유성

나.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가) 곡의 분위기와 음악 구조 간의 관계

(나) 음악의 특성과 그 배경이 되는 문화, 역사, 타 예술과의 관련성

(다) 일본 및 지역(향토)의 전통음악과 아시아 지역 민족음악의 특성과 그것이 보여주는 음악의 다양성

1학년 감상의 ‘나.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 (다) 일본 및 지역(향토)의 전통음악과 아시아 지역 민족음악의 특성과 그것이 보여주는 음악의 다양성’의 항목 해설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전통음악 및 아시아 여러 민족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 사항]과 연계한 지도가 필요하며, 교사가 인식한 음악의 특징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이 그것을 아는 데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중략) 지도 시에는,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생각하거나 비교한다는 연계를 도모하여, 각 음악의 특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 전통음악 및 아시아 여러 민족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지어 듣는 활동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그 음악에만 존재하는 고유성에 주목하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며 음악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문부과학성, 2017, p. 62-63).

〈표 14〉는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내용으로, B: 감상 영역의 구성은 같으나 해설을 다소 심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표 14〉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 내용, B: 감상 (문부과학성, 2017)

(2) B. 감상

(1) 감상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감상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음악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음미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가) 곡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
- (나)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의 음악의 의미와 역할
- (다) 음악 표현의 공통성과 고유성

나.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 (가) 곡의 분위기와 음악 구조 간의 관계
- (나) 음악의 특징과 그 배경이 되는 문화·역사, 타 예술과의 관련성
- (다) 일본 및 지역(향토)의 전통음악, 그리고 외국의 갖가지 음악적 특징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음악의 다양성

2학년 및 3학년 감상의 ‘나.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 (다) 일본 및 지역(향토)의 전통음악, 그리고 외국의 갖가지 음악적 특징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음악의 다양성’의 항목 해설은 다음과 같다.

1학년에서도 음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학습은 이루어지지만, 2·3학년에서는 단순히 음악이 다양하다는 사실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함께 음악 문화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다양한 특징을 지닌 음악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확장시키고, 인류가 지닌 음악 문화의 풍요로움을 깨닫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문부과학성, 2017, p. 89).

감상 활동 지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음악교육이 전통을 단지 타문화와의 차이를 통해 인식하게 하기보다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연결성 속에서 정체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은 전통음악, 서양음악, 세계음악 간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기보다, 음악의 다양성 그 자체를 공존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를 위한 분별이 아닌, 상호 존중과 수용의 감각을 길러내려는 교육적 태도로 읽힌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전통을 ‘과거의 유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이어져 온 문화적 궤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전통문화의 계승 전략’을 감각적,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실현하려는 일본 음악교육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공통 사항]에서는 음악의 구성 요소와 그 관계를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음악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은 후술할 교수·학습 및 평가의 용어와 기호에 관한 사항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15>는 [공통 사항]으로,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 내용, [공통 사항]  
(문부과학성, 2017)

(3) [공통 사항]

(1) “A. 표현”과 “B. 감상” 지도를 통해 다음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및 요소 간의 관계를 지각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특성과 분위기를 감수하며, 지각한 것과 감수한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

나.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및 관련된 용어나 기호 등을 음악 속 기능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

다.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의 두 영역으로 나뉘며,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1학년 목표와 내용, 그리고 2학년 및 3학년 목표와 내용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연주·감상·창작의 세 영역 중 감상과 창작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전통음악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감상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유산’, ‘국악’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중 국악 관련 문화유산을 강조하였고, 창작에서는 ‘정간보’를 통해 전통음악의 기보법을 강조하였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국악과 관련된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이라는 용어는 국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대한 분석에서 용어의 표면적 명시 여부보다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음악’의 개념이 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다양성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음악 역시 음악과 교육과정의 해석 대상에 포함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교수자가 수업을 보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수업 구성의 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1학년 및 2·3학년을 통틀어 표현·감상의 두 영역 모두에서 전통음악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표현에서 1학년 가창의 나. - (나), 1학년 기악의 다. - (나), 1학년 창작의 다. - (나) , 감상에서 1학년 감상의 나. - (다), 2학년 및 3학년 감상의 나. - (다)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전통음악의 체득과 내면화 전략이 드러났다. 또한,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속 [공통 사항]에서는 지식·기능의 습득과 더불어 정의적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 전통음악 및 전통문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서 교수자의 수업 구성 자율성을 확보한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뒤따르는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교수자의 수업 구성을 보다 제한하고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 5. 교수·학습 및 평가 비교·분석

한국의 경우, 교수·학습 안에 교수·학습의 방향, 교수·학습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평가 안에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도 계획의 작성 시 고려 사항은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은 열 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16〉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3장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4장

한국		일본	
3.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	4. 지도 계획 작성과 내용의 취급	지도 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교수·학습 방향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
	평가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	
		5. 부록	

## 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속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 중 교수·학습의 방향에서는 학교급을 나누어 어떠한 교수·학습을 실천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연주·감상·창작에서 음악 교과 역량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것, 학교급 간의 연계를 고려할 것, 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 방안을 구성할 것, 연주·감상·창작을 통합하여 진로 연계 교육을 실시할 것, 음악 교과 활동 시 안전하게 질서를 유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에는 내용 체계 속 내용 요소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아울러 교수·학습 환경 등의 맥락을 고려할 것,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시 적절한 수업 전략을 구성하여 학습의 폭을 넓힐 것, 실음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실현되게 할 것,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실시할 것,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을 중점으로 하되 영역을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지도하고 학생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게 할 것, 음악 행사에 참여할 시 질서 및 안전에 유의할 것을 밝히고 있다.

평가의 방향에서는 역량과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의 성취도와 수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하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할 것, 평가의 주체로서 학생이 음악 활동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 느린 학습자·이주배경 학생·특수 학생 등을 배려하고 수행 능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것, 온·오프라인을 연계했을 시 디지털 교육 환경에 적합한 평가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할 것, 학생의 음악적 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데 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을 밝히고 있다.

평가 방법에서는 영역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구상하여 평가 방법을 선정할 것, 사전 진단을 포함하여 과정 중심 평가가 실행되도록 할 것, 학습 과정에서 관찰된 행동 및 태도의 변화도 평가에 반영할 것, 원격 수업에서의 온라인 평가

와 비대면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자기 및 동료 평가를 포함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각 영역을 연계 및 통합하여 역량 함양 평가의 방안을 마련할 것, 잘한 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음악적 성장의 기회를 도모할 것을 밝히고 있다.

〈표 17〉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평가의 방법 (교육부, 2022b)

---

실기 평가, 관찰 평가, 실음 지필 평가, 서·논술형 평가, 보고서 평가, 구술 평가, 면담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프로젝트 평가, 토의·토론 평가, 온라인 평가 등

---

#### 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4. 지도 계획 작성과 내용의 취급’을 살펴보면, 지도 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과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 두 부분으로 나뉘며, 평가 항목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 마지막에 음악 요소 표가 제시되어 있었으나,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의 하나로 음악 요소들이 기술되고 있다.

지도 계획의 작성 시 고려 사항은 (1)부터 (6)까지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단원과 내용의 흐름을 살펴 자질·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할 것, 두 번째, 각 학년의 내용 중 표현과 감상 영역 지도에 있어서 지식·기능과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지도할 것, 세 번째, [공통 사항]은 표현과 감상 영역을 포괄하여 요구되는 자질·능력이므로 영역과 연계하여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네 번째, 표현과 감상 영역 지도 시 특정 활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통 사항]을 중심으로 각 영역과 분야의 연계를 도모할 것, 다섯 번째, 장애가 있는 학생 등을 배려하여 지도 내용 및 방법을 조정 및 운영할 것, 여섯 번째, 제1장의 총칙 제1의 2항의 (2)에 제시

된 도덕 교육 목표에 기반하여 음악과의 특성에 맞게 도덕 교과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지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은 (1)부터 (10)까지 열 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우리나라’, ‘향토’, ‘전통음악’, ‘전통’, ‘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항목은 (2)의 (1)와 (7)항목, (3)의 (1)항목, (6)항목, (8)의 (7)항목, (9)항목, (10)항목이다.

(2)의 (1)와 (7)항목을 살펴보자.

(1) 민요, 나가우타 등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창 중에서, 학생이나 학교, 지역의 실태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목소리나 창법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다룰 경우,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이 우리나라나 지역의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것.

(7) 우리나라에서 오래도록 불리며 사랑받아 온 가곡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이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일본어가 지닌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것. 각 학년에서는 아래의 공통 교재(제재곡) 가운데에서 1곡 이상 포함할 것(문부과학성, 2017, p. 106-107).

〈표 18〉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일본의 가곡 목록 (문부과학성, 2017)

赤とんぼ	三木露風(作詞)	山田耕柞(作曲)
荒城の月	土井晩翠(作詞)	滝廉太郎(作曲)
早春賦	吉丸一昌(作詞)	中田 章(作曲)
夏の思い出	江間章子(作詞)	中田喜直(作曲)
花	武島羽衣(作詞)	滝廉太郎(作曲)
花の街	江間章子(作詞)	團伊玖磨(作曲)
浜辺の歌	林 古溪(作詞)	成田為三(作曲)

(3)의 (1)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학교, 지역의 실태를 고려한 후, 지도상의 필요에 따라 일본 전통 악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전자악기 및 세계 민족 악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학교 3년간 하나 이상의 일본 전통 악기를 다루도록 하고, 그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이 우리나라와 지역의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문부과학성, 2017, p. 111).

(6)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창이나 전통 악기 지도를 할 때에는, 언어와 음악 간의 관계, 자세와 신체 사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구창가(くちしょうが, 악기음을 음절로 나타낸 구음 노래)를 활용하도록 한다(문부과학성, 2017, p. 113).

(8) B: 감상의 (7)항목은 다음과 같다.

(7) 감상 교재는, 우리나라 및 지역의 전통음악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 중에서, 지도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 곡을 선정하여 다루도록 한다(문부과학성, 2017, p. 115).

(9)항목에서는 음색, 리듬, 속도, 선율, 짜임새, 강약, 형식, 구성 등의 음악 요소를 밝히고 있는데, 전통음악과 관련된 표현으로 리듬에서는 '마(ま)', 속도에서는 '서파급', 선율에서는 '음계', 짜임새에서는 '선율이 쌓여가는 방식', 형식에서는 '음두일동형식(메기고 받는 형식)', 구성에서는 '테(て)', '구창가(くちしょうが)'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항목은 다음과 같다.

각 학년의 [공통 사항] (1)항목 중 1에 제시된 ‘용어와 기호 등’에 관한 지도에 있어서는,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소학교)」 ‘제2장 제6절 음악’에서 제시한 항목들에 더해 학생의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에 제시한 내용을 음악적 기능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문부과학성, 2017, p. 117).

(10)항목에서 전통음악과 관련된 용어로는 박자, 리듬: 마(ま), 속도: 서파급, 프레이즈, 선율: 음계, 조를 포함하고 있다. 전통음악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자.

박자의 경우, 일본 전통음악을 다룰 때, 박자라는 용어는 ‘노’에서는 ‘하야시’ 담당 악기군을 지칭하지만, ‘가가쿠’에서는 특정 악기 명칭 또는 북을 치는 리듬 패턴의 주기를 뜻하는 등, 곡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리듬의 경우,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에서 사용되는 리듬 관련 용어로서 ‘마(ま)’는 음과 음 사이의 간격, 여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속도의 경우, 일본 전통음악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본래는 ‘처음, 중간, 끝’이라는 형식적 구성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 점점 빨라지는 속도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레이즈의 경우, 일본 전통음악에서 박자가 없는 곡과 박자가 명확하지 않은 곡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박자가 없는 음악의 경우, 숨(호흡)이 프레이즈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며, 박자는 있지만 박자감이 명확하지 않은 음악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이루는 단락이 프레이즈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선율의 경우, 일본 전통음악에는 민요 음계, 미야코부시 음계 등과 같은 오음 음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업 제재곡의 선율 구성음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음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조의 경우, ‘가가쿠’ 등에서도 조의 개념이 있으며, 예를 들어 평조(ひょうじょ

う), 일월조(いちこつちょう) 등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 다. 교수·학습 및 평가 속 전통음악의 중요성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 속 교수·학습 및 평가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학교 급을 나누어 어떠한 교수·학습을 실천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직접적으로 전통음악이나 전통문화라는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전통음악이나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음악 활동 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한국과 달리,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꼭 배워야 할 가곡의 목록을 제시하고, 어떠한 접근법으로, 어떠한 음악 요소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내용 취급 및 지도 시 고려 사항은 열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 (3), (6), (8), (9), (10)의 항목에서 전통음악과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였다. 즉 한국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교수자의 수업 설계 자율성을 고려하는 반면, 일본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전통음악의 지도법이나 소학교에서부터 배우는 음악 요소에 더해 배워야 할 내용을 기술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 6. 기타 사항

본 연구의 ‘문서 체제 구조 및 내용 비교’에서 한국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맨 앞에 배치되어 있고, 일본은 부록이 마지막에 배치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기술하였다.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5장 부록은 순서대로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발

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1장 총칙,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2장 제5절 음악, 교과 목표, 각 학년 목표 및 내용 계통표(중학교 음악과), 가창 및 감상 공통 교재 목록,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제2장 제6절 음악, 교과 목표, 각 학년 목표 및 내용 계통표(초등학교 음악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3장 특별 교과 도덕, 도덕의 내용 학년별 및 학교 단계별 목록으로 구성되어 총 아홉 개의 부록을 싣고 있다.

〈표 19〉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5장 부록의 목록 (문부과학성, 2017)

5. 부록
1: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발췌)
2: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1장 총칙
3: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2장 제5절 음악
4: 교과 목표, 각 학년 목표 및 내용 계통표(중학교 음악과)
5: 가창 및 감상 공통 교재 목록
6: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제2장 제6절 음악
7: 교과 목표, 각 학년 목표 및 내용 계통표(초등학교 음악과)
8: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3장 특별 교과 도덕
9: 도덕의 내용 학년별 및 학교 단계별 목록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음악교육을 통해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며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문서 체제 구성 및 내용, 양국의 문서의 중학교 부분을 연구 대상의 범위로 삼아, 표를 활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 속의 음악의 위치와 역할, 양국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전통음악 교육, 양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중 학교급을 중학교로 한정하여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양국 모두 역량, 성격 및 목표 비교·분석,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은 다섯 가지의 음악 교과 역량과 여섯 가지의 총론 역량의 이중 트랙 역량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모든 교과에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배움으로 향하는 힘·인간성 등’의 세 가지 역량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단일 트랙 역량을 제시하였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음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역량은 음악 교과 역량과 총론 역량에서 모두 ‘공동체 역량’이었다. 여섯 가지 총론 핵심 역량은 다섯 가지 음악 교과 역량으로 재구성되어 반영되며, 이는 다시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되었다. 전통음악은 이러한 역량 및 인간상과 긴밀히 연결되며, 특히 문화유산 향유, 공동체 소통, 문화적 감수성 함양의 장으로서의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음악과 직접적으로 연

계된 역량은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그리고 ‘배움으로 향하는 힘·인간성 등’의 세 항목 모두로, 교과 목표와 교과 목표의 하위 목표인 세 항목과 직접적으로 세 역량이 연계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달리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과 개선 사항 등이 개정 경위와 기본 방침에 수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성격 및 목표의 측면에서 한국이 정체성과 문화적 소통의 확대를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일본은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지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정서 중심의 문화 계승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중학교 1-3학년을 통틀어 연주, 감상, 창작의 세 분야로 나누어 기술하는 한편, 일본은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의 두 학년으로 나누어 A: 표현, B: 감상, [공통 사항]의 세 분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었다.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공동체적 연대와 문화적 소통 중심의 교육적 접근과 의도를 강조하고,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정서 기반의 내면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교육 내용과 성취 수준의 구조 속에 전통음악을 실천 중심으로 구체화하였고, 일본은 학년별 목표 및 내용 안에서 정서적 태도와 문화적 공감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을 제시하였다.

넷째,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은 연주·감상·창작 전 영역에 걸쳐 학습자의 주도성과 역량 함양을 강조하며, 디지털 환경과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음악교육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에서는 ‘전통음악’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및 평가에 해당하는 지도 계획 작성과 내용의 취급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과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성취 기준을 통해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우,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공통된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하는 방식과 전략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서 전통음악을 다루되,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역량 중심 서술을 유지하며 실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에서 전통음악의 지도 방법을 통해 정서적 몰입과 문화적 내면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이 전통음악을 다문화 사회 및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장 가능한 교육 콘텐츠로 다루는 반면, 일본은 문화 정체성과 연계된 감정적 연대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 음악교육의 전통문화 계승 전략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적 교육 방안 모색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권고 사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 분석이나 교사 및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직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혜근. (2009).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비교 (I)*. 『국악원논문집』, 20, 21 - 56.
- \_\_\_\_\_. (2010). *한, 일 음악교육 변천사 비교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5, 187 - 225.
- 김민하. (2016).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에 나타난 국악 교수 학습의 특징*. 『국악교육연구』, 10(2), 5 - 31.
- 박신미. (2004).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음악교육연구』, 26, 77 - 100.
- 박지현 외. (2022).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광주교육대학교.
- 석호징. (2003). *한국과 일본의 현행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음악교육공학』, 3, 74 - 108.
- 양종모. (2010).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변천과 방향 탐색*. 『음악교육공학』, 11, 71 - 84.
- \_\_\_\_\_. (2017). *핵심 역량과 음악 교과 역량의 국제 비교: 한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6(4), 77 - 103.
- 오쿠나카 야스토. (2013). 『국가와 음악: 일본 근대국가 형성과 음악의 수단화』 (허지연·조성우·서승임 옮김). 민속원.
- 이경언. (2011).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음악 교육과정의 전통음악 내용 비교 분석*. 『국악교육연구』, 5(2), 97 - 114.
- 이에스더. (2008). *음악과 문화적 역량*. 『문화예술교육연구』, 3(2), 163 - 185.
- 이지예. (2021). *일본 음악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일본 전통음악 교육의 현황*.

- 『음악교육연구』, 50(1), 105 - 129.
- 임혜정. (2017). *근대 일본 창가 교육의 성립과 '화양절충'의 음악적 시도 - 1872~1881년 사이를 중심으로 -*. 『국악교육연구』, 11(2), 185 - 207.
- 현경실. (2018).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내용 변천 연구*. 『교육연구』, 71, 85 - 109.
- Brown, H. D. (2006).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6th ed.). Pearson Education ESL.
- 교육부.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_중학교*. 교육부.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 교육부. (2022b).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 문부과학성. (2017). *[음악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헤이세이 29년) 해설*. 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4661.htm](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4661.htm)
- Encyclopædia Britannica(2025). Culture. <https://www.britannica.com/topic/culture> (2025년 05월 05일 접속.)

#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Middle School Music Curricula in Korea and Japan

Kim Soojin

Department of Educatio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national music curricula of South Korea and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strategies for preserving and passing down traditional culture. The analysis is limited to the middle school level and examines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announced by South Korea’s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2017 Course of Study: Music” issued by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Through a comparative framework, the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both curricula by examining the components of competency, aims and objectives, content structure and achievement standards, as well as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music and cultu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both countr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lture in music education, they employ different strategies and approaches in achieving this shared educational goal.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each country interprets and implements cultural heritage education within their music curriculum. It also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actical educational strategies in school settings.

Future research is recommended to examine how the curricular recommendations for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re being implemented in practice, through textbook analysis or surveys with teachers and students. Such studies could help refine future curriculum development and bridge the gap between educational policy and classroom practice.